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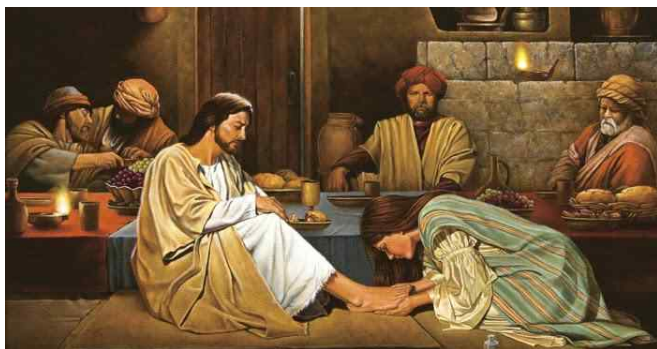
예수의 성매매 진실



예수가 살던 시절에는 성매수자가 여성에게 향유를 제공하고 그 가치에 따라 여자를 고른 후 성관계를 갖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내용 중에 여자가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예수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일한 주제가 네 복음서에서 모두 다루어진 사건은 별로 없는데, 여자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6:6-12와 누가복음 7:37-38, 그리고 마가복음 14:3-5과 요한복음 12:1-5에도 나옵니다. 차이점은 마태나 누가에서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데, 마가와 요한에는 금액 300데나리온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2에 포도원 품꾼의 품삯이 하루에 1데나리온이니, 이 금액은 노동자의 1년 치 임금 수준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어서 제자들이 불만을 나타냈고, 재정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유다가 화를 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이야기와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6:14-16에 가롯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가 기름 붓는 일에 많은 돈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들의 대리인으로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긴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7:5-8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발을 피발이라 일컫느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18-19의 “이 사람[유다]이 불의의 삯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발을 아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발이라는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 일회성 성매매나 장례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썼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큼니다. 마치 혼인할 때 내는 지참금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약혼이나 결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을 보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즉위하는 왕을 위해 제사장이 거행하는 의식과 같이 성스럽고 의미 있는 의례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베다니라는 장소에서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고, 시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유월절 이틀 전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런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습니다. 기름 붓는 상황이 예수님의 사망 시점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이 곧 이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소는 베다니가 아닌 갈릴리(Galilee)며,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가 죽기 1년 전이라고 합니다. 1)

마리아가 예수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요한복음 11:2)라는 것인데, 이 장면은 위에 언급된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위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기름 붓는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가 술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마태복음 11:19)라는 기록이 있고, “인자[예수]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폭식가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NIV판에는 술주정뱅이로 KJV판에는 술고래로 표현]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누가복음 7:34)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21:18-21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아들이 있으면 ‘이 녀석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먹보[KJV판은 glutton(폭식가), NIV판은 profligate(방탕아)]와 술꾼[술에 잠긴 자(drunkard, 술고래)]입니다’라고 말하면 온 시민이 둘로 쳐죽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먹보와 술꾼(a glutton and a drunk)이라는 말은 어쩔 도리가 없는 아들에게 적용된 형용사임이 분명하다.” 2)

예수가 죽음을 앞두고 혼약을 맺은 것 같다가, 살면서 소외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폭음과

폭주를 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도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먹보와 술꾼으로 묘사한 것은 성서를 통틀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과 마태와 누가가 예수를 비하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 특이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기름부음과 관련하여 쓰인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예수가 마치 성매매한 사람처럼 취급받게 만들고 예수가 종파를 운영하고 마지막 남긴 돈이 농장 노동자의 1년치 임금 수준으로 너무 적은 금액임을 인식하고 두 복음서는 이 금액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복음서에서만 예수를 구약에서 죽을죄를 지은 먹보와 술꾼으로 묘사하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들이 예수를 비하하고 예수의 검소한 삶을 감추려고 한 것을 보면 이들이 예수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갖지 않았던 것은 명백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을죄를 지은 방탕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옹호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욕보인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거금을 건넨 것은 혼약이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 마리아에게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 놓은 자금을 건네면서 조직 운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가 넘긴 금액이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버금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평소에 검소하게 살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https://www.gotquestions.org/alabaster-box.html>

2) *예수에게 솔직히*. 로버트 펄크 지음, 김준우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1999: 294-295